금천강씨

금천 강씨의 유래



강감찬
고려 정종 2년(948)~현종 22년(1031)

금천(衿川) 강씨(姜氏)는 시흥으로부터 나왔고 시조(始祖)인 강여청(姜餘淸)은 신라 말엽에 태어나 문하시랑(門下侍郞)을 역임하였다. 신라시대부터 이어진 금천 강씨의 내력은 실로 천여 년을 이어온 장구한 역사라 할 것이다. 시조 이후 강궁진(姜弓珍)이 고려 초에 개국벽상공신(開國壁上功臣)이 되었으며 그의 아들이 강감찬(姜邯贊)이다. 문무(文武)를 겸한 장상(將相)으로서 강감찬의 공적은 당시에 으뜸이었고 명성은 후세에 빛났으니 나라의 자랑이요 가문의 영광이었다.

금천 강씨는 강감찬 이하 십대에 이어 두루 관직을 역임하였고, 판윤공(判尹公) 강양(姜揚), 정랑공(正郞公) 강희(姜曦)는 일찍 문과(文科)에 올라 그의 이름이 널리 전해졌다. 삼대를 지나 사간공(司諫公) 숙돌(叔突)은 문과에 급제했으나 당시 연산군(燕山君)대의 혼란스런 상황을 비판하는 강직한 직언(直言)으로 조정과 불화를 빚어 귀양을 가기도 했다. 그러나 중종조에 그의 공로가 인정되어 청백리로 추증(追贈)되었다.

이후 참의공(參議公) 강찬(姜燦)과 문정공(文貞公) 강석기(姜碩期)가 연이어 관직에 올라 왜적을 물리치고 국정을 보살핀 공로가 널리 알려져 또한번 문호가 빛났다. 그러나 인조대 병술(丙戌), 정해(丁亥)에 가화(家禍)를 겪게 되어 가문은 큰 어려움에 처한다.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전래되던 서적이나 족보마저도 소실되었으나 선조의 사적과 성관(姓貫)을 복원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여 번성했던 가문의 옛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

금천 강씨의 대표적인 인물들

강감찬(姜邯燦)

강감찬은 고려 정종(定宗) 2년(948)에 금천(衿川, 지금의 관악구 봉천동)에서 삼한벽상(三韓壁上) 공신 강궁진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초휘(初諱, 아명)는 은천(殷川)이었다. 성종(成宗) 2년에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였고 그해 9월 진사(進士)의 복시(覆試)에 급제하였다. 강감찬은 어려서 학문을 좋아하고 재략(才略)이 뛰어났으며 성품(性品) 또한 청렴하고 검소하였다. 체모(體貌)가 작은데다가 의상이 단촐하여 중인(中人)에 지나지 않았으나 언제나 바른 몸가짐으로 조정에 출사하여 대사(大事)에 임하고 대책을 결단함에 우뚝히 국가의 주석(柱石)이 되었다.



고려 강감찬 장군 사적비

고려 현종 원년(1010) 경술(庚戌)년 12월에 거란의 성종이 40만 대군을 이끌고 서경을 침공하였다. 서경을 에워싸고 있던 거란군은 얼마후 포위를 풀어 동북면(東北面)으로 진격하였다. 거란이 침입해오자 현종은 남쪽으로 피란하여 마침내 창화현(昌化縣, 楊州의 한 縣)에 이르게 되었다. 이때 지채문(智蔡文)이 경사(京師, 開城)로부터 급히 돌아와 서경에서의 패전소식을 전했다. 이에 여러 신하들이 항복할 것을 의논하였지만 당시 예부시랑(禮部侍郎)이던 강감찬은 홀로 항전을 주장했다. 강감찬은 당시의 전세(戰勢)가 중과부적(衆寡不敵)이니 우선 적의 예봉(銳鋒)을 피한 후 천천히 후일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 주장하면서 임금의 남행(南行)을 권유하였다. 현종은 강감찬의 말을 좇아 남행을 단행했다가 하공진의 설득에 힘입어 거란이 물러감에 따라 다시 환도하여 위난을 면했다.



낙성대 휘호

현종 2년(1011) 6월에 강감찬은 한림학사를 제수받았고 3년 후인 현종 5년 7월에는 사직단(社稷壇)을 수축하였다. 중추사(中樞使) 강감찬은 사직단을 수축함에 있어 예관(禮官)에게 명하여 의식(儀式)의 주(註)를 논의하여 정하도록 했는데 임금도 이를 좇아 행하였다. 현종 9년 윤달에 현종은 강감찬을 서경유수(西京留守) 내사시랑 평장사(內史侍郎 平章事)로 임명하면서 친히 시를

지어 강감찬이 남방으로 파천(播遷)할 것을 건의했던 공로를 칭찬하기도 했다.

같은 해 12월에 거란의 성종은 강동 6주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다시 10만 대군으로 고려를 침공케 했다. 거란군이 대거 침략해 오자 현종은 강감찬을 상원수(上元帥)로 삼고 강민첨(姜民瞻)을 부원수(副元帥)로 삼아 군사를 이끌고나가 이를 방어하도록 했다. 흥화진(興化鎭, 지금의 평북 의주)에서 적을 맞은 강감찬은 치열한 전투끝에 그들을 크게 쳐부셨다. 이에 격노한 소손녕(蕭遜寧)이 또 침략해오자 강감찬은 20만 8천 명을 거느리고 영주(寧州)로 진출하여 적을 막아내도록 하였다. 귀주(龜州, 지금의 평북 구성)에 이르러 강감찬이 기병(騎兵) 만여 명을 선발하여 산골짜기에 매복시키고 또 굵은 밧줄로 쇠가죽을 꿰어 동쪽으로 흐르는 강물을 막아놓은 채 적병이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마침내 적군이 다다르자 막아놓은 물꼬를 터놓았고 적군은 급류에 휩쓸려 순식간에 큰 혼란에 빠졌다. 강감찬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복병을 풀어 적군을 습격하여 대승을 거두었다. 이것이 '귀주대첩'(龜州大捷)이며 강감찬은 대 전과를 거두니 살아 돌아간 자는 수천 명에 불과하였다.

강감찬의 '귀주대첩'

현종 10년(1019) 정월에 거란군이 철수하여 북쪽으로 달아나면서 개경을 공격한다는 소식을 듣고 경계를 삼엄히 하고자 하여 강감찬은 병마판관(兵馬判官) 김종현(金宗鉉)으로 하여금 군사 일만 명을 거느리고 개경에 입성하여 왕궁을 호위하도록 조치했다. 마침내 거란군이 패하여 달아나기 시작하자 강감찬도 공격을 개시했는데 적군의 시체는 들판을 뒤덮고 아군이 획득한 포로와 군마, 낙타, 무기 등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거란의 군주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노하여 사신을 보내 소손녕을 질책하며 말하기를 "네가 적을 가벼이 여기고 적지 깊숙히 들어갔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무슨 면목으로 나를 대하려는가. 내 기어이 너의 낯가죽을 벗겨 죽이고야 말리라"고 하였다.

강감찬이 삼군(三軍)을 거느리고 개선하여 개경에 돌아오니 현종이 영파역(迎波驛, 황해도 금천군 평산 토산의 접경)까지 친히 나가 영접하였다. 현종은 강감찬과 휘하의 군사들의 공로를 위

로하며 큰 잔치를 베풀었고 강감찬에게는 손수 금화(金花) 여덟 가닥을 꽂아주고 오른손으로 황금술잔을 들어 권하고 왼손으로는 그의 손을 잡고 더없는 위로와 찬탄을 표했다. 그리고 친히 시를 읊어 말하기를 "경술년간에 오랑캐가 난리를 일으켜 적병이 한강까지 깊이 들어왔는데 당시 강공이 계책을 쓰지 않았다면 온 나라가 모두 오랑캐가 되었으리"라 하였다.

이때 전공으로 강감찬은 태위(太尉) 문하시랑(門下侍郎) 동내사(同內史) 문하평장사(門下平章事) 천수현개국남(天水縣開國男)의 관작(官爵)과 식읍(食邑) 삼백호(三百戶), 그리고 추충협모안국공신(推忠協謀安國功臣)이라는 호(號)를 받았다.

관직에서 물러나 성남(城南) 별서(別墅)에 머무르면서 <낙도교거집>(樂道郊居集), <구선집>(求善集) 등을 저술하기도 했던 강감찬은 현종 22년(1031) 향년 84세로 임종을 맞았으며 그에게 인헌공(仁憲公)의 시호가 내리고 현종 묘정에 배향되었다.

강희(姜曦)

강희

강희의 자(字)는 회지(晦之)요 호(號)는 독산(禿山) 또는 칠괴당(七槐堂)이다. 강희는 세종 22년(1439)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이조정랑에 이르렀다. 시흥군 동면에 독산이 있는데 선생이 그 아래 터를 잡아 살면서 괴화나무 일곱 그루를 손수 심어 가꾸었다. 이때문에 지명을 따서 호를 지었다고 전한다.

강찬(姜燦)

강찬(1557~1603)

명종 12년(1557)에 출생한 강찬의 자(字)는 덕휘(德輝)이며 호는 동곽공(東郭公)이다. 어려서부터 행동이 범상치 않아 보는 이들이 기이하게 여겼으며 성장함에 따라 학문에 힘써 게을리하지 않고 재주가 매우 민첩하여 문사를 지음에 반드시 시간을 정하여 작성하였는데 매우 뛰어났다. 일찌기 선배를 좇아 병려문(騈儷文)을 배웠는데 그 시구가 사람들을 놀라게 함으로써 칭찬을 더하였다.

선조 16년(1583) 생원, 진사 양시험인 사마시에 급제하였는데 이때 율곡선생이 과거를 관장하여 그를 장원으로 예정하였지만 고시관의 저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같은 해 임금이 성균관 문묘(文廟)의 공자 신위에 참배한 후 실시한 알성문과에서 그는 또다시 급제하여 임금앞에서 경서를 강론하는 경연(經筵)에 입시하게 되었다. 춘추관에 들어가 검열(檢閱)이 된 후 승정원 주서(注書)를 거쳐 선조 21년 사헌부감찰에 제수되더니 모친상 이후 다시 호조좌랑에 제수되었다. 그후 홍문관에 서용되었으나 여러 차례 재상 이산해(李山海)의 시기로 부임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조정에 나돌던 유언비어에 연루되어 단천군수로 좌천되기도 했으나 지방관으로서의 직분을 다하고 고을 사람들에게 무예를 단련시킨 결과 임진왜란(壬辰倭亂)을 맞아 백성들과 혼연일체가 되어 국난을 이겨냈다. 임진왜란 이후 백성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방황하자 직접 밭을 갈고 경작을 하며 백성들과 함께 생활했다. 이러한 선생의 공적이 인정되어 모범적인 목민관으로서 임금께 표리(表裏)한 관복 한 벌을 하사받기도 했다.

이후 황해도 관찰사, 경상좌도 관찰사, 강계부사, 홍주목사, 해주목사등 지방관을 두루 거쳐 첨지중추(僉知中樞), 좌승지, 이조참의에 이르렀다. 그러나 기자헌(奇自獻)과의 반목으로 배척을 당하여 여주목사로 나갔다가 관직을 버리고 황해도 연안 남루한 민가에 낙향하여 선조 37년(1603) 임종을 맞았다.

강찬은 천성이 맑고 정직하여 중요한 지위를 두루 역임하였으나 몸가짐과 지론이 한결같아 시류에 구차히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리를 좇는 사람들의 시기와 모함을 자주 받았다. 그러나 언제나 마음을 깨끗이 하는 한편 재주있는 인재들을 사랑하고 선한 사람들을 좋아하였으니 세속을 벗어나 온순하고 부드러운 군자라 일컬어졌다. 그리하여 선조 39년(1605)에 조정에서 선무원종공신의 호를 내리고 아울러 가선대부(嘉善大夫) 이조참판 겸 동지, 경연(經筵), 의금부 춘추관, 성균관사 홍문관제학, 세자좌부빈객에 추증하였다.

강석기(姜碩期)

휘(諱)는 석기(碩期)요 자(字)는 부이(復而)이고 호는 월당(月塘), 시호는 문정공(文貞公)이다. 금천 강씨는 고려때 벽상공신 강궁진으로부터 시작하여 강궁진의 아들 강감찬은 현종을 섬겨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던 공로가 있어 관직이 도장상(都將相)에 이르렀으며 고려 태조 이하 여러 왕과 공신들의 위패를 모신 숭의전(崇義殿)에 배향되었다. 그 후로 가문이 크게 번창하고 큰 인물들을 배출하였는데 그 종통을 이어 사간원 강숙돌(姜叔突)과 소격서참봉(昭格署參奉) 강뢰(姜賚)와 삼등현령(三登縣令) 강유경(姜惟慶) 등이 있으며 이들은 강석기의 고조, 증조, 조부 삼세(三世)이다. 강석기의 부친은 강찬(姜燦)으로 이조참의이며 선조대의 명신이었다.



강석기 묘

선조 12년(1580) 3월 9일 태어난 그는 백부 강순의 가르침을 받으며 성장하였다. 어려서부터 단정하고 중후하며 정신과 식견이 뛰어나서 성인(聖人)의 재능과 도량이 있었다. 약관의 나이에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 선생을 좇아 성리학과 예학(禮學)의 여러 책을 배우고 열심히 수학하였다.

광해군 4년(1612)에 사마시에 급제하고 곧 문과에 급제하였다. 이에 승문원정자(承文院正字)를 역임하던 중 인목대비의 폐위론(廢位論)이 일자 관직을 버리고 초야로 내려왔다. 인조반정 후 강찬은 박사(博士)를 거쳐 성균관전적(成均館典籍)에 오르고 병조좌랑에 제수되는 등 훌륭한 관직을 두루 거쳤다.

인조 5년(1627) 후금(後金)과 강화가 성립되자 강찬은 직언을 서슴치않다가 조정의 미움을 사 양근군수로 보직되기도 했으나 대신들의 노력으로 승정원 동부승지에 발탁되고 같은 해 9월에 소현세자빈 간택의 어명에 따라 그의 딸이 선발되어 12월에 가례(嘉禮)가 이루어졌다. 이 세자빈이 강찬의 둘째딸인 민회빈(愍懷嬪)이었다. 이후 선생은 이조참판을 거쳐 병조참판에 이르고 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 및 부총관(副摠管)을 겸임하였다. 그리고 얼마후 예조판서로 좌부빈객(左副賓客)에 제수되었으나 인조 12년(1633) 대사헌으로서 인조의 부친인 원종대왕을 종묘에 모셔 제사지낼 것을 논의하다가 인조의 엄한 전지(傳旨)가 내려

관직을 삭탈당하고 문외로 쫓겨나기도 했다. 그러나 인조 14년(1635)에 방면되었고 이듬해 왕세자가 태어나자 복직되어 예조판서, 이조판서를 역임했다.



월당집

후금의 재침을 당한 후에 우의정에까지 승진하였으나 여러 차례 사직을 간절히 청하여 비로소 왕의 윤허를 얻어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로 유임되었다. 관직의 짐을 벗은 후에도 국사(國事)를 깊이 생각하는 우국충정을 보였다. 임종이 가까워짐을 깨달은 그는 유소(遺疏)를 쓰려고 지필(紙筆)을 준비케 했으나 정신이 아득하여 이에 미치지 못하자 집안 사람들에게 일러 "내일은 내가 마땅히 죽으리라"라고 하더니 이튿날 과연 임종하니 이때가 인종 21년(1643) 6월 13일이었다.

그러나 강찬이 임종한 후 4년 뒤 인조 25년(1646) 민회빈은 모함과 참소에 빠져 폐위되어 본가(本家)로 물러나와 사약을 받았다. 이로인해 민회빈의 모친 정경부인 신씨(申氏)와 민회빈의 형제 네 명이 함께 죽어 일족이 거의 멸족이 되었다. 그후 숙종 44년(1718)에 빈궁(嬪宮)의 위호(位號)가 회복됨과 아울러 묘소를 봉축하게 되었지만 가문의 크나큰 화가 아닐 수 없었다.

광명시에서의 금천 강씨

광명시의 금천 강씨는 주로 '을파'이다.

금천 강씨가 광명에 정착한 것은 약 600여 년 전이다. 정착경위에 대해서는 전해지는 것이 별로 없지만 이곳에서 현재 20대를 살아왔다. 광명시 이외에 홍성, 청주, 대전 등의 지역에서 소규모의 집성촌을 이루고 있지만 이곳이 가장 큰 집성촌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금천 강씨의 분파는 '갑, 을, 병, 정'의 4개로 나뉘는데 '갑파'는 주로 황해도 지역에 살고 있으며 광명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주로 '을파'이다. 그 가계(家系)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2世 강양(姜揚) 판윤공(判尹公)

13世 강비웅(姜匪熊) 산음현감(山陰縣監)

14世 강희(姜曦) 이조정랑(吏曹正郎)

15世 강숙돌(姜叔突) 대사간(大司諫)

16世 강뢰(姜賚) 참봉(參奉)

17世 강유경(姜惟慶) 삼등현령(三登縣令)

18世 강돈(姜焞) 조지서별제부군(造紙署別提府君)

19世 강석기(姜碩期) 문정공(文貞公). 大匡輔國 崇祿大夫 議政府 右議政 겸 領經筵事監, 春秋館事, 世子傅

20世 강문성(姜文星) 횡성현감(橫城縣監)

21世 강후망(姜後望) 숭릉참봉(崇陵參奉)

22世 강봉서(姜鳳瑞) 선릉참봉(宣陵參奉)

23世 강태흥(姜泰興)

24世 강명달(姜命達) 오위장(五衛長)

25世 강유일(姜有一) 영희전(永禧殿) 참봉(參奉)

26世 강인호(姜仁浩) 감역공(監役公)

27世 강윤형(姜潤亨

28世 강치용(姜致龍)

29世 강교석(姜敎錫) 단성군수(丹城郡守)

30世 강해익(姜海翼) 영회원(永懷園) 참봉(參奉)

31世 강좌근(姜佐根) 영회원(永懷園) 참봉(參奉)

32世 강연범(姜然範)

33世 강창균(姜昌均)

현재 금천 강씨의 사당은 없으나 11대조 할머니 소현세자빈의 묘소인 영회원이 있다. 강감찬 19대 손녀이자 우의정 강석기와 고령 신씨 사이에서 5남 3녀 중 둘째딸로 태어난 민회빈은 인조의 맏아들인 소현세자의 빈이다. 소현세자는 인조 3년(1625) 세자로 책봉됨과 아울러 민회빈과 가례(家禮)를 올렸으며 인조 5년(1627) 정묘호란에 이은 병자호란을 당하여 두 명의 아우와 남이웅(南以雄)을 비롯한 300여 명의 수행원들과 함께 청나라 심양에 볼모로 잡혀갔다. 인조 14년(1636) 민회빈은 원손(元孫)인 석철(石鐵)을 낳았고, 이어서 둘째 석린(石麟)과 3명의 딸을 낳았다.

그후 8년 뒤 귀국했으나 소현세자는 두달여만에 의문의 죽음을 맞았고 민회빈은 소현세자의 사후에도 지성으로 인조를 받들었다. 하지만 소현세자와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던 북벌파 김자점의 모함때문에 역적으로 몰려서 인조 24년(1646) 사약을 받았고 이로인해 세자빈은 물론 일족이 큰 화를 당했으나 숙종 44년(1718) 무술년에 무고함이 밝혀져 다시 복위되었다.

그런데 소현세자의 죽음에 관련된 한 일화가 전한다. 청나라가 중원 지방을 장악하여 명나라가 멸망함에 따라 볼모로 잡혀갔던 소현세자와 두 왕세자는 드디어 환국의 허락을 받았다. 이때 청나라 황제는 이들을 불러놓고 각자 한가지씩의 소원을 들어주겠노라고 말했다. 이에 소현세자는 중국에서 유명한 벼루를

달라고 하여 그것을 얻었으나 두왕자는 자신들과 함께 잡혀온 조선 사람들을 석방해 달라고 청했다. 두왕자의 소원에 청나라 황제는 난색을 표시했으나 자신이 스스로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말했던 터라 두왕자의 청을 들어주고 말았다.

이런 내용을 전해들은 인조는 두왕자를 크게 칭찬했지만 맏아들인 소현세자에게는 노기띤 목소리로 "세자는 짐과 나라의 위신을 상하게 하는 큰 죄를 지었다"라며 청나라에서 받아온 벼루를 세자에게 집어 던졌다. 인조가 던진 벼루를 머리에 맞은 소현세자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앓다고 죽었다고 한다.

한편 34세의 젊은 나이로 급사한 소현세자의 죽음에 대해 <인조실록>(仁祖實錄)은 "세자의 시신(屍身)이 시커멓게 변해 있었으며 칠혈(七穴)에서 피가 흘러 독약에 중독된 사람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세자의 죽음에는 소현세자와 대북파의 갈등, 그리고 민회빈과 인조의 총비(寵妃) 조소용(趙昭容)의 반목이 크게 작용하였다. 소현세자는 중국에 볼모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도 서구 사람인 아담 샤알(Adam Schall. 湯若望)과 교유하며 새로운 서학(西學)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서구 과학문명에 대한 여러 지식을 배웠으며, 귀국할 때도 <천문역산서>(天文歷算書)와 과학, 천주교에 관한 번역서적, 여지구(輿地球), 천주상(天主像) 등을 들여오기도 하면서 여러 방면으로 조선 중흥의 방법을 모색했다. 더구나 임진, 병자 양란을 거치면서도 사그러들지 않는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를 과감히 혁파하고자 했다.

<인조실록>

이러한 점은 왕권을 견제하려는 권신들과 마찰을 빚었고 결국 대북파와의 갈등을 수반할 수 밖에 없었다. 일화에서 전하는 것처럼 소현세자가 받아온 벼루는 한계점을 드러내는 기존의 세계관을 극복하고 새로운 학문적 사상의 유입으로 중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지의 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인조는 소현세자의 귀국과 함께 세자에게 임금의 자리를 양도하라는 압력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더구나 세자가 돌아오면서 비단, 황금 등 많은 선물을 받아오면서 친청(親淸)적인 모습을 보이는 데에서 반감과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결국 인조의 두려움을 부추킨 권신들의 반대로 소현세자의 뜻은 실현되지 못

했고 비운의 죽음을 당했던 것이다.

전부터 인조의 총애를 받던 조소용과 민회빈은 반목하게 되었고 소현세자가 죽음을 당한 이후에도 세자빈 민회빈은 정성을 다해 인조를 받들어 인조 또한 민회빈을 몹시 아꼈다. 그러나 조소용은 대신들을 부추켜 후환을 두려워한 북벌파와 함께 민회빈이 그를 저주·시해하려 했다고 무고하여 후원에 감금시켰다가 끝내는 사약을 받게 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민회빈의 죽음과 동시에 서인(庶人)으로 격하시켰고 소현세자의 세 아들을 제주도로 귀양보냈으며 민회빈의 가문은 역적으로 몰려 삼족(三族)이 죽음을 당하는 큰 화를 입게 되었다.

이런 가화(家禍)는 강석기가 죽은지 4년 후에 벌어졌고 이듬해 모든 관작을 삭탈당했지만 숙종 43년(1717)에 김창집(金昌集)의 진달(陳達)과 강석기의 증손인 강봉서가 임금의 행차시에 북을 쳐서 원통한 일을 호소하여 하문을 기다리는 격고명원(擊鼓鳴寃)으로 인하여 그 이듬해 4월 12일 관작이 회복되었으며 숙종임금도 예관(禮官)을 보내 제사를 지내게 했다.

그후 영조는 경기감영에 명하여 영회원 주변에 사는 자손들과 함께 힘을 모아 묘소를 잘 관리하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묘소의 관리에 태만하고 소홀함이 없이하라고 지시했다.



강봉서의 묘

처음 영회원에는 제실과 여러 석물들이 있었으나 소현세자빈을 이장한다고 하여 여러 석물들도 함께 옮겨가고 제실도 헐어버려서 지금은 묘소와 약간의 석물만 남아있을 뿐이다. 또한 영회원 옆에는 세자빈의 부친인 강석기의 묘소도 안치되어 있다.

인조대의 사건으로 가문이 거의 멸족을 당했으나 혈족의 마지막 한 사람, 강석기의 증손(曾孫)인 강봉서(姜鳳瑞)만이 노비의 등에 업혀 피난을 갔다가 다시 이곳에 이르렀다. 때문에 우리나라의 모든 금천 강씨는 강봉서의 소생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인조대의 사건으로 인하여 많은 금천 강씨 사람들이 다른 성씨로 숨어 살았기 때문에 아직도 다른 강씨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최근에는 계속 금천 강씨임을 주장하고 본관을 바꾸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서 그들의 자료를 확인하여 금천 강씨로 받아주고 있다.

강석기의 유작집인 <월당집>(月塘集)이 전 5권으로 현재에8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이는 가화를 맞은 후 뿔뿔이 흩어졌던 그의 유고(遺稿)를 증손 강봉서와 외손 박사수(朴師洙)가 수집(蒐集)하여 책을 만들고 비문(碑文), 행장(行狀), 만사와 제문 등을 붙여 5권을 만들었으나 시편(詩篇)이 아주 적었다. 이에 시장(詩章) 40여 수를 월당선생의 사위 정태제(鄭泰齊) 후손 정혁룡(鄭赫龍)의 집에서 찾아내어 첨가하였다. 그리하여 강석기의 5대손인 강명달(姜命達)이 음성고을 수령으로 있을 때 간행하였다.

이외에도 영회원에 관한 내력을 적은 <영회원집>(永懷園集)과 1924년에 간행된 강효석(姜斆錫)의 <전고대방>(典故大方)이 전하고 있다. 특히 <전고대방>은 우리나라 고대로부터 근세에 이르는 각종의 참고자료를 모아 편찬한 것으로 4권 1책으로 되어있는데 권두에는 윤희구(尹喜求)의 서(序)가 있고 권말(卷末)에는 편자 강효석과 고응한(高應漢)의 발(跋)이 있다. 권1은 역대편(歷代篇), 전궁원묘(殿宮園墓), 만성시조편(萬姓始祖篇)으로 구성되어 있고 권2는 상신(相臣), 문형(文衡), 호당(湖堂), 청백리(淸白吏), 공신(功臣), 명장(名將), 등단(登壇), 문무제권록(文武制門/困 錄)으로, 권3은 경연관초선록(經筵官抄選錄), 유현연원도(儒賢淵源圖), 문인도(門人圖), 문장가(文章家), 서화가(書畵家) 등으로, 권4는 종묘배향록(宗廟配享錄), 문묘배향록(文廟配享錄), 서원향사록(書院享祀錄), 두문동칠십이인(杜門洞七十二人), 사색당파원인약설(四色黨派原因略說), 북관칠의사(北關七義士), 십이사화록(十二士禍錄). 임진란순절제인(壬辰亂殉節諸人), 기의승병장(起義僧兵將), 의기(義妓), 의병장(義兵將), 순절신(殉節臣), 척화신(斥和臣), 강도순절부녀(江都殉節婦女), 배종팔장사(陪從八壯士), 임오우해인(壬午遇害人), 갑신피화육대신(甲申被禍六大臣), 동원록(東援錄), 통신사(通信使), 외국인내공(外國人來貢), 외국인내사(外國人來仕), 명인귀화(明人歸化)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고대방>은 신라시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건별로 그 사건에 대한 인물을 들고 소전(小傳)을 붙였으며 요점을 들어 알기쉽게 편찬한 것이 그 특징이다.

<전고대방>



전고대방

또한 강해승(姜海昇)은 노은사리에서 태어났다. 1950년부터 2

년동안 수원시장을 지낸 뒤 은퇴하였다. 그의 묘는 광명시 학온동에 있다.

매년 음력 10월에 시제를 지냄

금천 강씨의 종친회는 매년 음력 10월(첫째주 일요일)에 광명에서 거행되는데 주로 을파 소생들이 모여 시제를 지낸다.

금천 강씨의 설화 및 전설

강감찬의 '귀주대첩'

귀주대첩의 명장인 강감찬의 탄생과 관련되어 기이한 이야기가 <동국통감>(東國通鑑)에 전한다. 임금의 명을 받은 신하가 하루는 시흥군에 당도하였는데 그때 큰 별 하나가 민가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 신하는 사람을 보내어 그 집에 가보도록 했고 그 집을 살피고 온 사람은 마침 그 집의 며느리가 사내 아이를 낳았다고 전했다. 신하는 마음속으로 이를 이상히 여겨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키웠는데 그 아이가 강감찬이었다. 후에 송나라 사신이 강감찬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절을 하며 이르기를 "문곡성(文曲星. 아홉개의 신이한 별 중에서 네째 별로 문명(文明)을 관장하는 별)을 보지 못한 지가 오래더니 이제 이곳에 있도다"라고 하였다.

또한 <여지승람>(輿地勝覽)에는 강감찬이 한양부판관(漢陽副判官)을 역임하던 중의 한 일화가 전한다. 당시 한양에 호랑이로 인한 피해가 많았는데 가끔 대낮에도 길가에 호랑이가 나타나 사람들을 해쳤다. 이로인해 유수(留守)가 걱정하고 있을 때 강감찬이 말하기를 "이는 매우 쉬운 일이니 제가 빨리 쫓아버리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유수가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묻자 강감찬은 손수 편지 한 장을 써서 군졸에게 주며 말하기를 "북문 밖으로 나가 몇번째 산골에 당도하면 마침 스님 두 사람이 있을 것이니 이 편지를 주어라"라고 했다. 군졸이 강감찬의 말을 좇아 가

보니 과연 스님 두 사람이 있기에 편지를 전하자 그 스님이 편지를 받아 보고 군졸을 따라 관아까지 왔다. 그때 강감찬이 스님에게 엄하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어찌 그 살 곳을 버리고 와서 사람을 해침이 이같이 심한가? 속히 무리를 거느리고 멀리 떠나가거라. 조금이라도 더디면 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자 두 스님이 머리를 조아리며 "명령과 같이 시행하겠습니다"라고 했다.

이를 보고 유수가 웃으며 말하기를 "판관은 망령이 들었소. 중을 일러 호랑이라 하오?"라고 말했다. 이에 강감찬은 스님을 가르키면서 "잠시 너희들의 본모습을 보여라!"라고 말하자 스님이 가사(袈裟)를 벗고 큰 호랑이로 변하여 뛰면서 섬돌 위로 올라와 난간을 잡고 우뢰와 같이 크게 울부짖었다. 이에 군졸들이 겁을 먹고 달아나고 유수는 너무 놀라서 기절해 버렸다. 강감찬이 호랑이에게 "빨리 가거라!"라고 말하니 두 호랑이가 뛰어나가 곧 사라져 버렸고 이후부터 호환(虎患)이 없어졌다고 한다.

독산공 강희

독산공 강희는 그의 호인 독산(禿山)에 관한 일화가 전한다. 어느날 한 사람이 선생의 호에 대한 이야기를 물었다. 선생은 "내가 터를 잡아 사는 곳이 한 산봉우리만 헐벗어 나무가 없어서 세상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이름을 독산이라 하였다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답이 의미하는 것은 다른 것이었다. 산이 헐벗음은 사람들이 도끼로 나무를 찍어내고 소와 양을 방목하여 그렇게 된 것이다. 선생은 이를 보고 안타깝게 생각하였다. 사람의 성품이 또한 이 산의 나무와 같으니 사람의 그 마음을 정성을 다하여 기르지 않는다면 욕심이 생겨나서 토끼와 소, 양과 같이 된다. 즉 사물과 자신의 마음을 달리 세운다면 사사로운 욕심이 가득찰 것이고 사람의 천성이 혼미해져 헐벗은 산과 같아질 것이다. 사람이 이러한 경우에 처한다면 어찌 사람이라 하겠는가.

산은 본래 나무가 있는 것인데 헐벗음에 이르고 사람에게 본래 맑고 깨끗한 천성이 있는데 예의와 도리를 모르는 경우에 이른다면 어찌 동물과 다르다 할 것인가! 사람으로서 이 본성이 있으면 공경을 마음에 두고있지 않더라도 사물의 유혹에 흔들리거나 사로잡히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그가 독산이라는 호를 정

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경계하고자 함이었다고 하자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비로소 그 뜻을 알았다며 감탄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일화는 <여지승람>(輿地勝覽)에 전하고 있다.

또 강희가 문과에 급제했을 때 한 설화가 전한다. 세종 22년(1439) 문과에 급제했을 때 합격자의 이름을 적은 방목(榜目) 가운데 선생의 이름이 있는데 이름아래 다음과 같은 주(註)가 적혀 있다.

『선생이 과거 시험장(科場)에 들어가 글을 지어 바치고자 하는데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 선생의 시험종이가 걷혀 날아가 버렸다. 그후 중국 사신이 선생의 글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이 사람이 이미 과거에 급제하였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답하여 "그렇다"고 하자 사신은 "이같은 문장(文章)은 중국에서 찾을지라도 쉽게 찾지 못할 것이다. 동국(東國, 우리나라)은 가히 인재(人才)를 잃지 않았구나!』

제보자 강덕근(69)씨

이것은 그의 문장력이 뛰어났음을 전하는 일화라 할 것이다.